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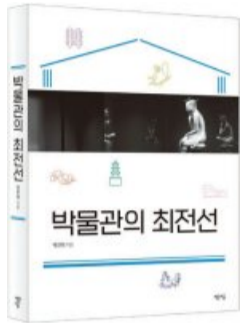
6.2t의 '철조 석가여래 좌상'은 어떻게 옮겼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박물관의 최전선

박찬희 지음



'대동여지도'는 우리나라 지도의 대명사이자 김정호라는 한 인간의 지도에 대한 집념이 투영된 문화재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대동여지도를 책으로 접한다. (모두 22권 접는 책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 크기는 가로 3.8m, 세로 6.7m다.

국립중앙박물관 조선태조실 전열장에는 대동여지도 영인본 일부와 목판 원본이 전시돼 있다. 전체를 전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를 통해 지도의 전체 크기를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다. 박찬희 박물관연구소 소장은 어느 날 실제 크기를 보고 싶었다. 영인본을 실물 크기에 맞춰 복사하고 두꺼운 종이에 덧붙인 뒤 이 종이를 이어 붙였다. 그런 과정을 거쳐 대동여지도 전체를 만들었다.



사방에서 둘러본 '반가사유상'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제공>

하나의 지도를 뛰어넘는 거대한 예술 작품이 펼쳐졌다. "국토는 웅장했고 땅에는 힘찬 기운이 서렸다. (중략) 상상 이상으로 큰 규모, 섬세한 세부, 각각의 퍼즐이 이어져 만들어진 하나의 국토에 놀랐다." 박물관 연구자이자 이야기꾼인 박 소장은 전국의 박물관과 유적을 찾아다니며 유물과 사람을 만났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도자기와 금속공예와 관한 전시를 20차례 준비했다. 이번에 펴낸 책 '박물관의 최전선'은 차원이 다른

박물관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구석구석 박물관', '몽골기행' 등을 통해 유물에 관한 내용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소개했었다. 한가지 이색적인 사례를 소개하자면, 금관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사람들은 신라의 왕관을 머리에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저자는 이한상 선생의 연구('황금장신구'를 통해 본 신라와 신라인)'를 발어 금관을 머리에 쓴 게 아니라 '죽은 자의 얼굴에 씌운 마스크'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황남대

총 복분의 금관(국보 191호)을 보면 아랫부분이 머리가 아닌 목 부분에 있었다. 저자의 호기심은 그 지점에서 발동했다. 직접 같은 크기와 모양으로 종이관을 만들어 얼굴에 씌워 보고 싶었다. 상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럴싸한 모습이 그려졌다. 물론 완전한 확인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상의 세계에 질문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 책에는 그동안 저자가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전국의 박물관에 대한 색다

른 이야기가 담겨 있다. 실제 현장에서 보고, 느꼈고, 경험했던 내용이라 생생한 현장감을 준다. 6.2t에 달하는 '철조 석가여래 좌상'을 옮긴 과정도 흥미롭다. 지난 2004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이사할 당시였다. 높이가 무려 281cm에 달하는 큰 유물은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결국 수장고 천장을 뚫고 유물이 든 상자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 전에 예방연습은 필수였다. 유물과 같은 무게의 돌을 넣은 나무 상자를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또한 당시 새로운 박물관이 세워지면서 유물도 이사를 해야 했는데, 옮긴 유물이 무려 10만 점에 이르렀다. 가장 관심을 끄는 유물은 국보 78호인 금동 반가사유상이었다. 포장된 유물을 실은 차량에는 박물관 직원을 비롯해 무장한 호송직원이 탑승했다. 앞뒤로는 경찰차가 배치됐다. 이뿐 아니라 당시 유물은 4월 19일에 운송을 시작해 12월 14일 마무리됐다. 저자의 현재 고민은 박물관의 확장성이다. "고정관념의 균열을 내고 인식의 폭을 확장시키고 성장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무게를 둔다. 관람객이 어떻게 전시를 살펴보는지도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수동적인 대상이 아닌 박물관을 움직이는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한다. 유물을 대하는 관점도 사뭇 달라졌다. 이전에는 유물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유물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는 "때로는 전열장과 박물관을 벗어날 때 속 깊은 이야기가 들렸다. 유물을 사람들과 연결시켜 살펴보자 유물이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말한다. <빨간소금·1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명 1·2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전미연 옮김



"고양이들에 관한 이야기지만 실은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인 이 한 편의 우화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가가 울리는 경종이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요. 세상은 그들 이전에도 존재했고 그들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니까" 돼지의 말이 자꾸만 귀를 맴돈다." 전미연 번역가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문명'을 옮기면서 한 말이다. 전염병과 테러, 전쟁으로 한계에 다다른 인류 문명 그리고 이 문명을 대신할 새로운 문명을 이야기하는 소설 '문명'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작금의 상황에 목격한 메시지를 던진다. 소설은 새로운 이야기이면서도 한편으로 '고양이'라는 소설을 토대로 무방하다. 작가는 이전에 고양이 화자가 되어 인간을 상대화하는 '고양이'라는 작품을 펴낸 바 있다. 이번 소설은 그 작품 주인공이었던 고양이 바스테트가 모험을 펼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고양이들의 일차 목표는 쥐 때의 공격을 물리치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다. 최종 목표는 인류 문명을 대신할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만난 소와 개, 비둘기 등 다양한 동물이 아군이 되기도 하고 적군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작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것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소설의 주요 등장 동물 다수가 고양이 피타고라스, 쥐 튀무르 등과 같이 케이지에 갇혀 있던 동물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동물들의 입을 통해 동물권 보호 차원을 넘어 인간 중심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는 의식을 전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때로는 잔인하고 때로는 유머러스하고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다. 소설의 미덕이 거기에 있다. <열린책들·각 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래된 질문

다큐멘터리 'Noble Asks' 제작팀의 지음



옥스퍼드대학교 명예교수이자 기사 작위까지 수여받은 데니스 노블은 불교철학과 자신의 이론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반박해 학계에 패러다임을 연 학자다. 그의 사상은 모든 것은 이어져 있다는, 생명과 삶은 유기적 관계로 형성된다는 불교 사상과 결을 같이 한다. 다큐멘터리 'Noble Asks' 제작팀은 세계적 생물학자인 데니스 노블에게 한국 사찰 여행을 제안한다. 생명이 유기적 상호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노블 교수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성파, 도법, 정관, 금강 스님과 대화를 나눈다. 노블 교수의 여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Noble Asks'는 그렇게 '오래된 질문'이라는 책으로 묶여졌다. 다큐멘터리 제작팀 외에도 사립과 예술, 역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 장원재 작가도 저자로 참여했다. 과학자와 스님들의 이야기는 잔잔한 울림과 깨달음을 준다. 친근하고 인간적인 화법은 과학 지식이 없거나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게 된다. 또한 노블 교수는 스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내면 깊숙이 숨겨 두었던 아픔을 꺼내놓는다.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며 아내가 죽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의 메시지와 명상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스님들은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매일 내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것, 먹고 자고 생활하며 내 일상을 가꾸는 것 등은 모두 순간순간 깨달음과 연관돼 있다. 저마다 색다른 곳에서 지혜를 구하지만 결국 돌아갈 곳은 바로 일상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담겨 있다. <다산북스·1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

존 M.렉터 지음, 양미래 옮김



"인간 본성의 최악의 측면은 집단을 구성할 때, 특히 그 집단이 인류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주창하고 실행에 옮기려는 욕망에 따라 결집할 때 본 모습을 드러내곤 한다." 인간의 행동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악행'에 주목한 '인간은 왜 잔인해지는가'가 출간됐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저자 존 M.렉터는 인간이 잔인해지는 이유에 대해 타인을 '대상화'하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대상화'란 타인을 주체가 아닌 사물로 바라보고 사물로 인식하는 심리적 현상이다. 저자는 심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등 여러 학문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경험 또는 대중에게 친숙한 사건을 언급하며 '대상화'가 우리의 일상이나 의식적·무의식적 활동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그는 또 인간의 악행에 대해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먼저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문제를 야기하는 방식, 즉 언어, 자아와 관계, 나르시시즘 등 다양한 예를 통해 설명한다. 나치 전범인 아이히만의 재판,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충격 실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엘버트 밴듀라의 동물화 실험 등을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풀어낸다. 저자는 "인간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규모로 온갖 만행과 탈선, 잔학 행위를 되풀이해 저지르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느리지만 쉼 없이 플라톤의 동굴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들도 마주하고 있다"고 전한다. <교유서자·2만8000원>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69주년 **광주일보**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자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경남의 겨울

화순군청
화순군의회 의원 일동

농협 화순군지부장 류종필 외 임직원 일동
도곡농협조합장 서병연 외 임직원 일동
능주농협조합장 노종진 외 임직원 일동
천운농협조합장 김준호 외 임직원 일동

화순농협조합장 조준성 외 임직원 일동
동북농협조합장 김정수 외 임직원 일동
이양농협조합장 안상섭 외 임직원 일동

화순고려병원장 배원화 외 임직원 일동
화순중앙병원장 장대용, 윤대현 외 임직원 일동